

/ 지역 단신 /

정종해 보성군수 '군민과의 대화'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민선4기를 맞아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지난 4일 노동·미력면, 보성읍, 응천면을 시작으로 5일 율어·겸백면, 범교읍, 조성면 6일 문덕·복내·회천·득량면 등 관내 12개 읍·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는 면단위기관장, 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보고, 주민건의, 군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담양 창평농협 '올해의 총화상'



담양군 창평농협(조합장 정원실·사진)이 전국 1천100여개 농협사무소에 주어지는 표창 중 가장 큰 영예인 '올해의 총화상'을 수상했다.

농협창립 45주년 및 통합 6주년을 기념해 최근 협력증강회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창평농협은 시설원에 농가에 대한 해충방제 지원과 잡곡사업 확대를 통한 쌀 대체작목의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과 농민조합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담양=최재희기자 jhwha@

광주~무안간 고속도 건설 대비 문평IC~국도 1호선 연결

신규도로 개설 급하다

서해안고속도와 연계 수도권 물류 급증 전망

서남부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내 문평IC에서 국도 1호선을 잇는 5.5Km 구간의 도로를 새롭게 개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나주시 문평면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2007년 완공될 예정인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 문평IC가 신설 채 호남지역 통행의 길목으로 자리잡아 서남부권의 교통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호남지역을 방문할 경우 최단거리인 문평

IC를 통해 각종 물류 운송 및 관광객들의 통행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평IC와 국도 1호선과의 연결 도로인 지방도 825호선이 편도 1차선에 불과하고 노면이나 인도마저 없어 실제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문평IC와 국도 1호선을 잇는 지방도 825호선 5.5Km 구간을 확·포장하는 등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주시 문평면변영희 신용길(65)회장은 "지방도 825호선의 경우 문평 IC가

개통될 경우 서남부권을 진입하는 길목 도로인데도 도로가 협소하고 농사철 이면 각종 기계가 통행하고 있어 복목현성이 발생하는 등 문평IC 설치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번영회를 비롯한 문평면 주민들은 문평IC 유지 당시 금천에서 다시 면을 연결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문평IC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지방도 825호선의 4차선 확·포장의 필요성을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 전남도 등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확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장흥 버섯연구소 내년 4월 설립

장동면 반산리에 40억 들여
우수품종·가공품 개발 주력

장흥 버섯연구소가 내년 4월 장흥군 장동면 반산리 일원에 설립된다.

장흥군은 4일 산·관·학 버섯관련 종사자와 버섯연구소 설립 추진단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 연구시설(연구원 5명)과 장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설립 추진단을 구성,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올월까지 부지조성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오는 10월 착공 계획이다.

또한 대학교수를 비롯한 버섯재배 농업인, 유통관련 대표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연구 장비 도입은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및 재단법인 설립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봇대 위에 웬 전망대?

고흥 남열리 해수욕장 길목

4,000여만원 들여 쉼터 조성

電柱 10개도 않고 설치 눈살

고흥군 영남면 소재지에서 남열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전망대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망 좋은 곳 쉼터조성 공사'의 일환으로 4천1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2005년 1월 완공한 이 전망대는 청정해역에 보석처럼 점잖아 떠 있는 섬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주 머무는 곳이다.

그러나 전망대 난간에 당연히 이설되고 없어야 할 전주(電柱)가 난간을 지탱해주는 구조물로 버티고 있어

전망대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관광객들의 이맛살을 짜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망대 내 전주 이설은 군의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이설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안됐다"며 "올해 추경예산에서 이설 비용 350만원이 확보되면 이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 담당자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때 전주 이설을 요구하면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으로 이설해준다"면서 "전망대의 난간 구조물로 전주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어느 누구도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이 전주 이설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전망대 공사를 한데다 자칫 군 예산만 낭비할 뻔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곳 전망대는 관리는 면사무소가, 보수는 문



고흥군이 지난해 1월 전주(電柱)를 이설하지 않은 채 신축한 영남면 남열해수욕장 길목에 위치한 전망대.

/고흥=대성수기자 dss@

화관광과가 맡는 등 관리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나무가 웃자라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솔병이 방치되는 등 전망대로서 기능마저 잃어가고 있다.

김모(40·고흥군 영남면)씨는 "공사는 감독했던 군 담당자가 한번이라도 현장을 봤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향우자녀 40명 초청
내달 문화유적 탐방
강진군 초·중생 대상

강진군은 향우자녀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8월 여름방학기간 중 1박2일 동안 부모들의 고향에 대한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 향우자녀 40명을 선발, 강진 다산교육관에서 1박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특히 문화재전문위원을 초청해 강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다산초당, 영광생가, 병령성, 무위사 등 관내 문화유적탐방과 청자의 제작과정을 견학하고 청자빛기 등 직접 체험도 실시한다.

모든 행사경비는 군에서 부담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향우자녀는 오는 20일까지 각 지역 향우회장이나 강진군청 경제발전과(☎061-430-3382)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냉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태양주택개발

태양주택개발